

학교폭력 피해아동¹⁾의 자살생각 유발경로와 한계효과에 관한 연구

*Analysis of Suicidal Ideation Pathways and Marginal Effects
in School Bullying Victims*

김경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진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학교폭력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자살생각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한계효과를 측정한 결과, 가해자수 3명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생각 13.86% 감소, 폭력강도가 1단계씩 완화될 때마다 자살생각 8.69% 감소, 피해종류수 1가지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생각 11.19% 감소, 친한친구수 5명씩 늘어날 때마다 자살생각 10.5% 감소, 동일조건인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살생각 32.38% 감소 등의 결과가 나타났으며, 학교폭력의 집단화, 흉포화, 행위중첩을 경계해야 하고, 유대강화, 대응차별화가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1세기에 접어든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가임기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1.15명(2009년)까지 하락한 이후 추세반등 없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며, 전체출생아수 역시 436천명(2013년)으로 역대 최저수준에 머물고 있다²⁾. 국가적 위기상황으로까지 묘사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직접적으로 출산 자

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가임기 인구가 자연스럽게 출산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 지원강화,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지원, 안전한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³⁾.

1) 국내법상 아동은 18세미만(아동복지법), 청소년은 9~24세(청소년기본법), 영유아는 6세미만(영유아보육법)으로서 일반적인 아동 연령기준은 6~17세이며, 9~17세 연령구간은 아동과 청소년이 중첩구간에 해당함.

2)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

3) 대한민국정부(2011). 새로마지플랜 2015.

아동의 주된 생활터전은 학교이며, 이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낸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 있는 시간이 많아 피해자들에게 학교가 오히려 가장 위협적인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장기적으로 지속화하는 특성이 있고, 장시간 학교폭력에 노출되면 자아 존중감 축소, 자신감 상실, 반항·공격·과격적인 성향, 위축된 대인관계, 공포,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을 겪게 되며, 정신적 불안감은 등교거부, 자살⁴⁾ 시도도 연결된다⁵⁾. 특히, 근래의 일부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되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학부모의 불안감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심각한 결과가 자살이다. 자살은 고의적으로 자신에게 죽음을 부과하는 치명적인 자해행위로서 어느 연령층에서 일어나더라도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특히 아동기에 발생했을 경우 가족과 사회에 던지는 충격은 더 커진다. 더구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아동 자살은 개인·가족 차원을 넘어 국가의 미래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아동 자살이 급증하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체적, 정신

적,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부모, 가족, 친구 등 대인관계에서부터 학교, 교육제도, 사회환경, 문화적 측면 등을 포괄하는 상호 긍정적인 관계적 맥락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한다. 2008년 10대 자살시도 동기의 1순위가 부모와의 갈등(29.5%)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2~3순위는 친구와의 갈등(14.8%), 학교문제(11.5%)로서 자살동기에 학교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⁶⁾. 즉, 자살시도자 4명중 1명이 학교생활에서 불거지는 갈등으로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그 이면에는 학교폭력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폭력이 자살 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교폭력과 자살위험 또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학교폭력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한국에서 이를 다룬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위험이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⁷⁾.

기존 국내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나 원인을 파악하거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진행되어 왔다. 물론 학교폭력이 자살생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부 연구가 있기는 하나, 학교폭력과 자살생각 경로에 실제 관측되지 않는 변수인 잠재변수를 도입하여 매개효과 등을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 연구는 잠재

4) 2011년 우리나라 10대(10~19세) 사망원인중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5.5명으로 사망원인의 26.5%를 구성하고 있음.(통계청, 2012)

5) 신복가·이성진(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44)**, pp.281~318.

6) 질병관리본부(2008),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06.08~'07.12) 결과 보도자료.

7) 김경미 외(2013), 한국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과 심리적 안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3)**, pp.237.

변수 도입없이 실제 관측된 변수만으로 학교폭력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학생·학부모가 제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찾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학교폭력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또래 학생들 간에 싸움을 하거나, 장난삼아 괴롭히는 일은 매우 오래된 현상이다. 하지만, 근래에는 특정 학생에 대한 학급전체의 정신적인 폭력, 우발적인 살인, 자살, 집단 성폭행 등과 같은 극단적인 학교폭력으로 발전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할 위급한 사회문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었다⁸⁾. 폭력피해학생은 우울증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심한 경우 자살에 이르기도 하며, 만성적인 등교거부, 성적저하, 중도탈락 등으로 인한 교육기회 상실, 안정적인 또래 관계 형성의 어려움에 따른 대인관계상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한다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

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은 신체적 및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집단따돌림이나 언어폭력, 금품갈취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고 있으며, 학교 내외를 불문한다.

2004년 7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관련 정부부처와 교육청, 경찰청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및 관련 민간단체들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초등학교 등·하교 안심알리미, CCTV설치, 배움터지킴이, 학생인권조례, 학교보안관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⁰⁾.

2) 자살생각

자살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이론으로 Fraud에 따르면 대상에 대한 증오가 자신에게 내면화되어 우울함이 발생하고, 이것이 극대화되었을 때 자기 파괴적인 행위로 자살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였고, Baumeister는 자살을 ‘자기로부터의 도피’ 즉, 자기와 관련된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¹¹⁾. 즉, 심리적 측면에서 자살은 우울, 고통이 극대화되었을 때 자기 파괴 또는 도피수단으로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라 할

8) 최종혁(2002). 학교폭력실태와 예방적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소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6), pp.21~45.

9) 노혜련 외(2006).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2).

10)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내부자료(2010).

11) 노윤채(2012).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충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지(17).

수 있다.

그런데 아동 자살은 특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징으로 인하여 성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성인의 경우 우울증과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병적 원인으로 인해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아동의 경우는 정신질환의 표현이라고만 할 수 없고, 갑작스런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회피하려는 충동적인 욕구 혹은 남을 조종하려는 의도, 자신에게 부당하게 대했다고 지각하는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보복이 자살의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이 사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시도되며, 실제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자살하기 보다는 자신의 괴로움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아동 자살은 성인 자살과 달리 충동성이 높다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므로 언제라도 행동화할 가능성이 크다¹²⁾.

아동기에는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이 곧 자살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자살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살로 옮겨진다는 것이 문제이다¹³⁾. 아주 경미한 수준의 자살에 대한 생각 일지라도 이후에 더 심각한 생각으로 발전되거나 즉시 자살시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의 심각성보다는 자살생각의 유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나이가 어리고 인지적 성숙도가 낮은 아동의 경우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각

적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특성이 있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¹⁴⁾.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기도 전에 자살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 자살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3) 학교폭력과 자살과의 관계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1차적으로 신체적 고통과 심리적 외상을 남기고, 2차적으로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⁵⁾. 김정수·노성덕(2003)의 연구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1순위가 '친구에게 따돌림 당할 때', 3순위가 '교내 폭력을 당할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연희(2001)의 연구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은 상황의 가장 높은 순위가 친구로부터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전영주·이숙현(2000)의 연구에서도 학교내에서 집단따돌림이 자살생각과 연결된다고 하였다¹⁶⁾.

한편, 학교폭력 연구의 상당수가 학교폭력을 우울이나 자살을 야기시키는 하나의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재엽 외(2010)는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할수록 우울이 증가하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더 많이 한다고 하였고, 박재연(2010)도 학교폭력은 아동·청소년 우울과 자살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경미 외(2013)는 학교폭력 경험 변인이 모두 자살생각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12) 김정수·노성덕(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 자이탄력성, 학교만족, 가족화목, 사회적 지지 및 우울과 관련하여, *대학생활연구*(21), pp.153~172.

13) 김보영(200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14) 신민섭 외(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9), pp.20~32.

15) 김재엽(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17-5), pp.121~149.

16) 박재연(2009),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구조적 관계 검증, *청소년학연구*(16-10), pp.249~272.

미쳤다고 한다. 노윤채 외(2012)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생각과 우울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협박, 욕설 등 학교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극단적인 선택, 즉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모든 요소가 자살생각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들이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유발경로) 학교폭력은 반드시 심리적 매개과정을 거쳐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인가?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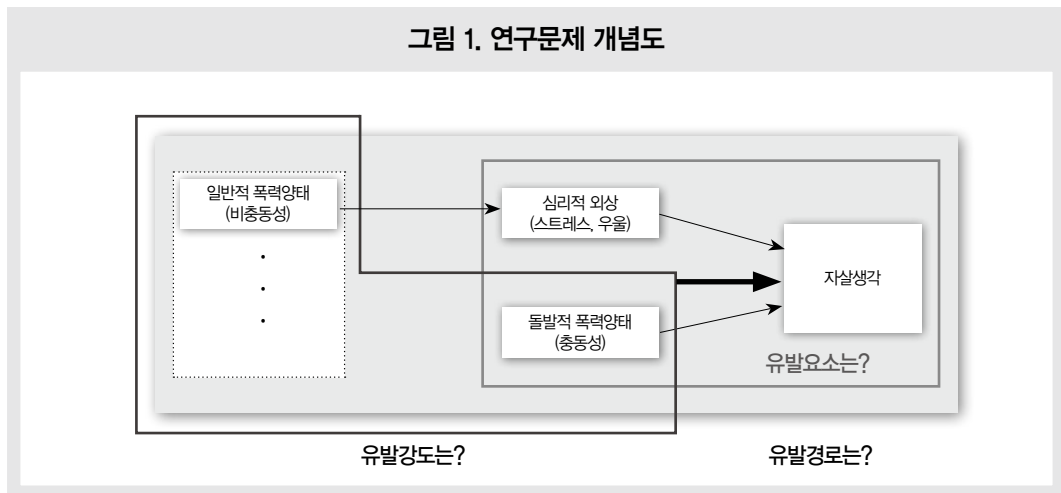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유발요소)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학교폭력 요소는 무엇인가?

학교폭력이 신체적 고통이나 심리적 외상을 수반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견해이지만, 관련된

신복기·이성진(2012), 김재엽 외(2010), 박재연(2010)은 스트레스, 우울 등 심리적 매개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런데 노윤채 외(2012)는 심리적 매개과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매개과정 없이 직접 자살생각에 이르는 충동적 양태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 양태가 심리적 매개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인지? 매개과정을 거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것들도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림 1. 연구문제 개념도



- (유발강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폭력 양태들의 강도는 어느 정도인가?

유발경로가 확인되었다면, 각 폭력양태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수준을 넘어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강도를 측정하고 자살생각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에 대한 유발 요소, 유발경로, 유발강도 등 연구문제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2) 연구모형 및 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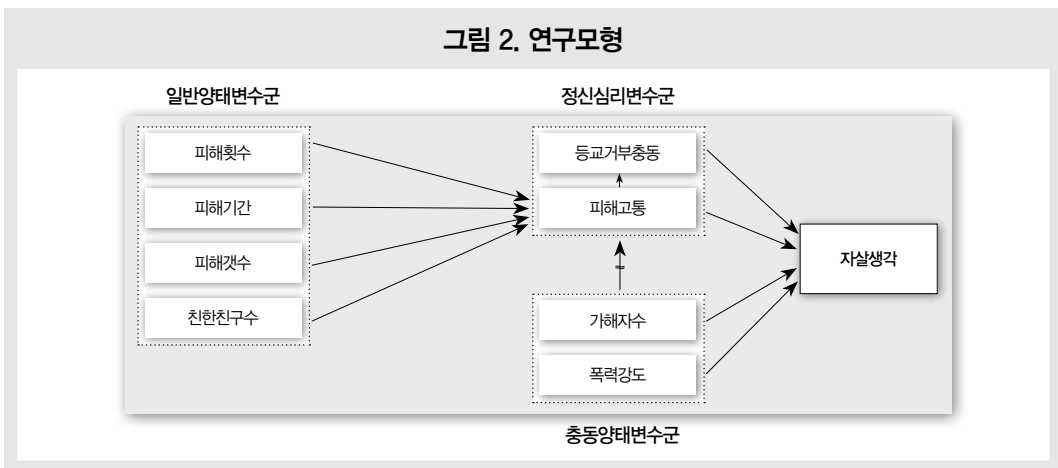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모형 설정과 관련하여 잠재변수 개념은 도입하지 않고 관측변수만으로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국내

논문들은 직접 관찰되지 않는 잠재변수인 우울을 매개변수로 도입하여 분석을 시도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우울 등이 내재된 변수로 간주할 수 있는 피해고통, 등교거부충동 변수가 관측변수로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잠재변수 도입없이 충분히 자살생각 경로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모형에 포함할 변수군은 정신심리변수군, 충동양태변수군, 일반양태변수군으로 명명하고, 각 독립변수의 성격에 따라 학교폭력의 일반적 양태를 띠고 있는가, 충동성을 내포하고 있는가, 정심심리적 성향을 표현하는가에 따라 달리 구분하여 배치한다. 신복기·이성진(2012)은 학교폭력 피해가 공포·우울, 등교거부, 자살시도로 연결된다고 하였고, 따라서 피해고통, 등교거부충동을 정신심리변수군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노윤채 외(2012)는 집단따돌림, 집단폭행, 협박, 욕설 등이 충동적으로 자살시도 경향이 높다고 했다. 이는 집단적이거나 극단적인 폭력유형일수록 충동성이 강해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그림 2. 연구모형



경향이 반영된 가해자수, 폭력강도를 총동양태변수군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그 외 학교폭력의 일반적 양태를 나타내는 피해횟수, 피해기간, 피해종류수, 친한친구수는 총동적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추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양태변수군으로 배치하고자 한다.

자살생각을 유발하는 요소는 정신심리변수군과 총동양태변수군으로만 구성되고, 이들은 직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자살생각 유발경로와 관련해서는, 일반양태변수군은 정신심리변수군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으로 연결되고 총동양태변수군은 매개과정이 없거나 약한 상태로 자살생각으로 연결되는 등 2개 경로로 연결된다고 설정한다. 다만, 경로는 2개지만, 성분행렬이 1개인 단일차원인지 2개 이상인 다차원인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총동양태변수군이 정신심리변수군과 무관하게 완전독립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면, 2차원인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매개변수를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면, 1개의 회귀선을 가진 단일차원인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 따라서 2개의 경로를 가지되, 1개의 차원으로 묶이는지 2개의 차원으로 분리되는지 추후 확인하기로 한다. 한편, 정신심리변수군내에서도 피해고통이 누적된 이후에 등교거부총동에 이르는 것으로 선후관계를 정하고, 일반양태변수들은 모두 피해고통으로 연결되어 매개과정을 거친다고 설정한다.

자살생각 유발강도는 일반·총동 양태변수들에 대해서만 측정하고자 한다.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의 유발강도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 매개과정에 있는 변수들을 포함하여 강도를 측

정할 경우 우회경로를 거치는 일반양태변수들의 고유의 영향력이 반감된 수준으로 측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적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개인차를 가진 심리적 부분보다 양태 자체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 연구가설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회귀모형은 정신심리변수군, 총동양태변수군 등 2가지 유형의 독립변수 4개가 모두 포함되는 단일차원의 모형일 것이다.

자살생각은 피해누적에 따른 내적·인지적 과정을 거쳐 발생하거나, 그러한 과정없이 돌발적·총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회귀모형 내에는 스트레스, 우울을 대변할 수 있는 정신심리변수와 폭력행위 그 자체로서 자살생각을 야기할 수 있는 총동양태변수가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추론이 가능하다. 그리고 단일차원으로 가정하는 이유는 아무리 총동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정신심리변수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동양태변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가진 변수로 추정함이 바람직하고 1개의 회귀선을 가진 단일차원의 회귀모형으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2)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정신심리변수군은 다른 변수들의 매개변수로 기능할 것이다.

다른 변수들과 달리 피해고통, 등교거부충동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학교폭력의 양태들이 자살생각까지 이르는 경로에서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2-1) 피해고통 변수는 등교거부충동 변수를 경유하는 간접효과도 가질 것이다.

등교거부충동은 우울증을 대변할 수 있는 변수로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고통이 반복되어 누적될 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해고통을 원인으로 하여 등교거부충동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 등교거부충동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3) 충동양태변수군은 종속변수에 대한 직접효과가 간접효과보다 클 것이다.

충동양태변수군은 이미 변수 자체에 극심한 고통과 우울을 동반한 심리적 외상의 특성이 간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동양태변수군은 종속변수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매개변수를 거쳐 미치는 간접적 영향보다 월등히 크다고 가정한다.

(가설 4) 일반양태변수군은 반드시 정신심리변수군을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피해횟수, 기간, 종류수, 친한친구수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반적 양상을 나타내는 변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살생각에 직접적으로 영향

을 미치기보다 매개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가설 4-1) 다른 변수들과 달리, 친한친구수는 피해고통을 완화해주는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른 변수들은 매개변수 또는 종속변수에 정(+)의 관계로 작용하지만, 친한 친구수는 부(-)의 관계로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친한친구수가 증가하면, 설령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더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통 역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1) 변수의 특성

(가) 종속변수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가 자살생각이다. 자살생각은 자기자신을 스스로 삶과 죽음의 경계에 내모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이 자살생각으로 연결되는 것만은 반드시 차단해야 할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해 자살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으며, 빈도에 따라 '전혀 없다'에서 '1년에 1~2번',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지속적으로(10회 이상)'까지 답하는 5점 척도이다. 동일한 유형의 학교폭력이라 하더라도 개인차로 인해 빈도가 달리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등교거부총동, 피해고통, 가해자수, 폭력강도, 피해횟수, 피해기간, 피해종류수, 친한친구수를 사용하였다. 등교거부총동, 피해고통은 정신적 측면의 변수로서 자살생각에 이르는 경로에서 매개변인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변수는 학교폭력의 양태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독립변인이나 돌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 변수는 3점 내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질 또는 양이 커진다.

(2) 자료출처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2010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자료는 16개 시도 초등학교 5, 6학년 및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인문, 전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 배부와 온라인 설문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 바 있다. 표본은 층화군집법을 사용하였으며, 층화변수로는 학교급(초, 중, 일반고, 전문고)과 학년, 그리고 지역(시도)을 사용하였다. 조사의 결과분석은 조사가 완료된 오프라인 설문자료 1,819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서는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22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몇 가지 변수들은 분석목적에 맞게 리코딩하였다.

(3) 분석 방법 및 도구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경로분석과 함께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을 추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에서 배제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계효과를 계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1.0(회

표 1.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자살생각	1.62	1.13	1	5
등교거부	2.13	1.39	1	5
피해고통	3.02	1.18	1	5
가해자수	1.85	0.67	1	3
폭력강도	2.29	0.97	1	4
피해횟수	1.97	1.08	1	4
피해기간	1.93	1.15	1	4
피해종류수	2.03	0.88	1	3
친한친구수	3.75	1.16	1	3

귀분석), Amos21.0(경로분석), STATA11(한계효과 계산을 사용하였다.

조사대상 학생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빈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40명 중 남자가 1,198명으로 65.9%를 차지하며, 여자가 621명으로 3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생이 118명(6.5%), 중학생이 804명(44.2%), 고등학생이 897명(49.3%)이다. 지난 1년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은 222명(12.2%)이며, 남자가 163명(73.4%)이고, 여자는 59명(26.6%)이다. 학년별 분포는 초등학생이 31명(14.0%), 중학생이 133명

4. 연구결과

1) 기초통계량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 상관계수

		자살생각	등교거부	피해고통	가해자수	폭력강도	피해횟수	피해기간	피해종류수
자살생각	피어슨 상관계수 (N)								
등교거부	피어슨 상관계수 (N)	.636**							
		221							
피해고통	피어슨 상관계수 (N)	.533**	.627**						
		220	221						
가해자수	피어슨 상관계수 (N)	.376**	.346**	.295**					
		220	221	221					
폭력강도	피어슨 상관계수 (N)	.179**	.076	.081	.041				
		214	215	214	214				
피해횟수	피어슨 상관계수 (N)	.109	.223**	.206**	.341**	.002			
		218	219	219	220	212			
피해기간	피어슨 상관계수 (N)	.202**	.295**	.287**	.213**	.063	.382**		
		215	216	216	217	209	216		
피해종류수	피어슨 상관계수 (N)	.165*	.195**	.224**	.154*	.035	.168*	.025	
		218	219	219	219	212	217	214	
친한 친구수	피어슨 상관계수 (N)	-.241**	-.198**	-.244**	-.104	.013	-.072	-.035	.005
		219	220	220	221	213	220	216	218

주: * 0.05수준에서 유의
** 0.01수준에서 유의

표 3. 신뢰성, 타당성 분석결과

요인분석(타당성)				신뢰성	
	성분행렬	고유치	총분산	Cronbach's Alpha	항목수
	1				
등교거부충동	.860	1.862	62.081	.684	3
피해고통	.843				
가해자수	.631				

주: 폭력강도 변수는 중복적재 제거작업시 1개의 성분행렬에 포함되었지만, 요인부하량이 불민족한 수준(0.178)으로 모형에서 제거하였음.

(67.7%), 고등학생이 63명(18.4%)로 나타났다.

(2) 변수들의 평균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들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1>에 제시하였다. 각 변수들은 최소·최대값 범위내에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다.

2) 회귀분석

(1) 상관분석

자살생각과 등교거부충동, 피해고통은 피어슨 상관관계수 r 이 각각 0.636, 0.533으로서 통계적으로 강한 양(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0.01수준에서 유의하다. 따라서 등교거부충동, 피해고통이 커질수록 자살생각도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살생각은 가해자수, 폭력강도, 피해기간, 피해종류수와의 상관관계수 r 이 각각 0.376, 0.179, 0.202, 0.165로서 양(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0.05이

하 수준에서 유의하다. 하지만 자살생각은 친한 친구수와는 약한 음(否)의 상관관계가 있고 0.01수준에서 유의하다. 한편, 자살생각과 피해횟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등교거부충동과 피해고통은 상관관계수 r 이 0.625로서 통계적으로 강한 양(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0.01수준에서 유의하다. 따라서 피해고통이 커질수록 등교거부충동 역시 커진다는 추정이 성립한다. 그 외 등교거부충동과 가해자수, 피해횟수, 피해기간, 폭력종류수와는 약한 양(正)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친한친구수와는 약한 음(否)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들 모두 유의수준 0.01이내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한편, 피해고통과 다른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도 등교거부충동 사례와 유사한 경향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그 외 변수들간 상관관계는 가해자수와 피해횟수·피해기간·피해종류수간, 피해횟수와 피해기간·피해종류수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Model		비표준화 계수		t	Sig	R2	F	Sig
		B	Std. Error					
1	(Constant)	.544	.112	4.868	.000	.385	130.851	.000
	등교거부충동	.502	.044	11.439	.000			
2	(Constant)	.131	.164	.800	.425	.417	74.292	.000
	등교거부충동	.387	.055	7.073	.000			
	피해고통	.217	.065	3.360	.001			
3	(Constant)	-.273	.207	-1.316	.190	.443	54.776	.000
	등교거부충동	.345	.055	6.239	.000			
	피해고통	.202	.063	3.191	.002			
	가해자수	.289	.093	3.098	.002			

주: 폭력강도 변수는 중복적재 제거작업시 1개의 성분행렬에 포함되었지만, 요인부하량이 불민족한 수준(0.178)으로 모형에서 제거하였음.

(2) 신뢰성, 타당성 분석¹⁷⁾

신뢰성 분석시 Nunnally(1978)에 의하면, 탐색적인 연구분야에서는 보편적으로 크론바허 알파 계수가 0.7이상이면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8개의 독립변수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크론바허 알파 계수가 0.541로서 0.7에 크게 못미쳤다. 따라서 중복적재(crossing loading) 제거작업을 반복하여 1개의 성분행렬을 가진 단차원의 모델이 확보되었고, 요인부하량 0.631~0.860, 고유치 1.862, 설명된 총분산량 62.08%로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크론바허 알파 계수가 0.684로서 신뢰성도 확보하였다(<표3> 참조).

(3) 회귀분석

단계적 회귀(Stepwise regression)¹⁸⁾ 방식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hat{Y} = -0.273 + 0.345x_1 + 0.202x_2 + 0.289x_3$$

(\hat{Y} =자살생각, x_1 =등교거부충동, x_2 =피해고통, x_3 =가해자수)

이 회귀식은 분산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며(유의확률 0.000), 결정계수 $R^2 = 0.443$ 으로서 3개의 변수가 총 변동의 44.3%를 설명하고 있다. 설명력이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7) 신뢰성, 타당성 분석은 조사표 설계당시 수행되어야 하나, 본 연구는 기존자료의 재분석 과정이므로 분석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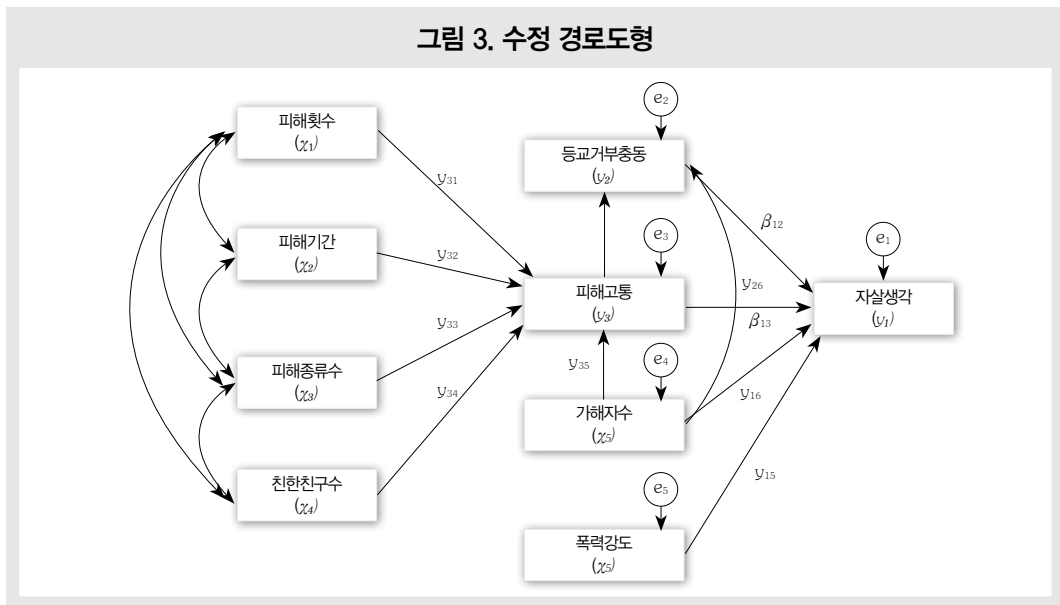
18) 회귀모형의 설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주어진 이론적 모형이 없거나, 혹은 많은 설명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를 모형에 포함해야 할지 결정하기 힘들 때 단계적 회귀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여러 설명변수 후보 중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의 조합만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방법임(민인식, 2010).

어느정도 모형의 적정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3개 변수의 회귀계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유의확률 0.000). 아울러, 회귀모형의 다중공선성문제를 진단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1.02~1.16사이에 분포되어 있고, 평균 vif 역시 1.11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각 독립변수의 계수들은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고, 0.01수준에서 유의하다. 그런데 회귀계수의 수치는 척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계수값 차이로 영향력을 판별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Stepwise방식은 어떤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가를 판별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모델1이 38.5%를 설명하고 모델2가 3.2%, 모델3이 2.6%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등교거부충동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순으로 피해고통정도, 가해자수의 순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¹⁹⁾.

(가설 1)은 회귀모형에 정신심리변수군, 충동양태변수군 등 2가지 유형의 4개 변수들이 모두 포함되는 단일차원 모델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2가지 유형 변수군 포함여부, 4개변수 전부 포함여부, 단일차원 모델 여부 등 3가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에는 2가지 유형의 변수군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폭력강도 변수를 제외한 3개 독립변수만 포함되었다. 그리고 모형에서 제거된 변수들이 별개 차원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4개변수를 별도로 분석한 결과, 피해횟수, 피해기간, 피해종류수



19) t값을 통한 해석만으로도, 등교거부충동의 $t_{값}(6.239)$ 이 피해고통의 $t_{값}(3.191)$, 가해자수의 $t_{값}(3.098)$ 보다 더 크기 때문에 등교거부충동이 종속변수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등 3개 변수가 1개의 요인으로 묶였고 요인부하량 (0.406이상) 과 고유치(1.431)는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설명된 총 분산량(47.7%)과 크론바허 알파 계수(0.488)가 기준치에 미달하였다. 따라서 결국 본 모델은 다차원성을 가지지 않고 단차원의 모델이라는 결론내릴 수 있다. 결국 (가설 1)은 2가지 유형 포함여부, 단일차원 모델 여부는 채택되지만, 4개변수 전부 포함여부는 기각되어 일부채택, 일부기각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3) 경로분석(path analysis)

(1) 경로도형

회귀모형에서 제거된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간접효과를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제거된 변수들과 종속변수간 유의한 상관관계로 미뤄볼 때, 회귀분석에서 나타나지 않은 변수들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모형내에 포함되어 있는 독립변수로부터 종속변수에 대한 효과를 관측변수를 경유하는 간접효과와 이를 경유하지 않는 직접 효과로 분해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결과

를 얻을 수 있다.

당초 연구모형에 회귀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경로도형은 [그림3]과 같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표3>의 주석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폭력강도 변수는 1개의 성분행렬에는 포함되었지만, 요인부하량이 불충분한 수준(0.178)이기 때문에 제거된 변수에 불과하다. 즉, 종속변수와의 밀접성이 약한 것일 뿐, 달리 말하면 선형관계가 미약한 것일 뿐 충동양태변수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수자체가 모형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지 여부는 경로모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내생변수의 측정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_1 = \beta_{12} \times y_2 + \beta_{13} \times y_3 + \gamma_{16} \times \gamma_{15} \times \gamma_5 + \zeta_1$$

$$y_2 = \beta_{23} \times y_3 + \gamma_{26} \times \gamma_6 + \zeta_2$$

$$y_3 = \beta_{36} \times \gamma_6 + \gamma_{31} \times \gamma_1 + \gamma_{32} \times \gamma_2 + \gamma_{33} \times \gamma_3 + \gamma_{34} \times \gamma_4 + \zeta_3$$

(2) 적합도 검증

수정 경로도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표 5>에서 χ^2 통계량, TLI, CFI, RMSEA를 제시하였

표 5. 모형적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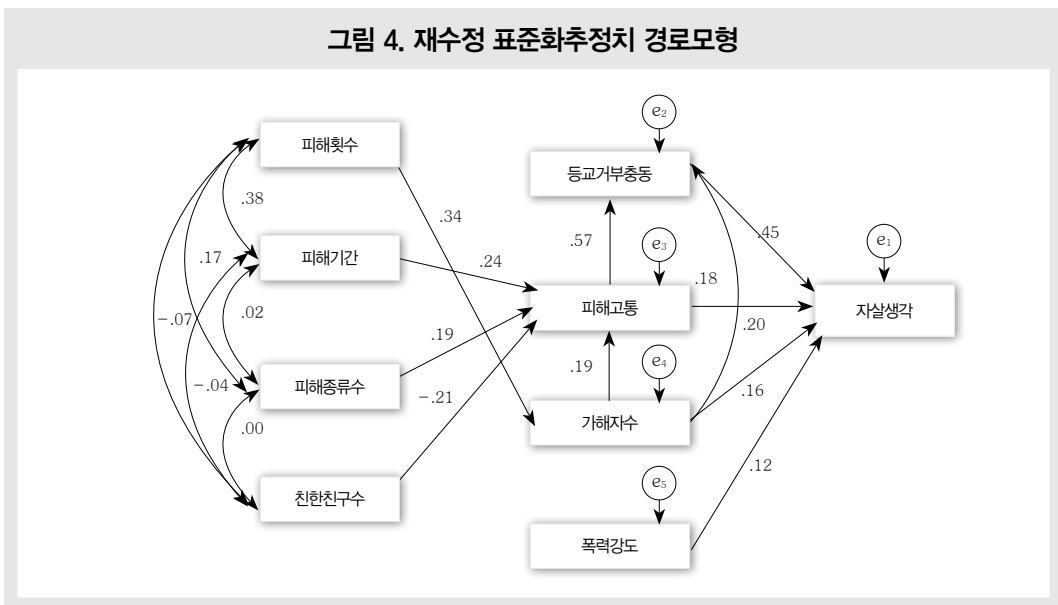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AIC
초기 수정모형 (피해횟수 → 피해고통)	49.714	19	.800	.915	.030	119.714
재수정모형 (피해횟수 → 가해자수)	22.997	19	.974	.989	.011	92.997

표 6. 경로계수

경로	B	β	S.E.	C.R.	p값
자살생각 ← 등교거부충동	.363	.450	.052	6.935	.000
자살생각 ← 피해고통	.188	.197	.060	3.111	.002
자살생각 ← 가해자수	.267	.161	.087	3.060	.002
자살생각 ← 폭력강도	.141	.123	.058	2.445	.014
등교거부충동 ← 피해고통	.678	.574	.063	10.816	.000
등교거부충동 ← 가해자수	.375	.183	.109	3.439	.000
피해고통 ← 가해자수	.337	.194	.106	3.196	.001
피해고통 ← 피해기간	.241	.238	.062	3.881	.000
피해고통 ← 피해종류	.256	.193	.080	3.185	.001
피해고통 ← 친한친구수	-.210	-.209	.061	-3.453	.000
가해자수 ← 피해횟수	.211	.340	.039	5.372	.000

다. X^2 통계량은 자료에 대한 정규분포를 토대로 계 산되는 것이다. 이는 자료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 에 본 연구에서는 TLI, CFI, RMSEA와 같은 적합 도 지수를 참고하였다.

그림 4. 재수정 표준화추정치 경로모형



모형적합도 검증결과, 피해횟수가 피해고통을 향하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고, 가해자수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계수의 P값이 0.910으로 유의하지 않고, 모형적합도에 있어서도 CFI, RMSEA는 기준을 만족하나, TLI가 0.8로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시 경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상관관계분석을 참조하여 가해자수로 향하는 경로로 모형을 수정하였다.

재수정모형은 계수의 P값($0.000 < 0.05$)과 적합도 지표(TLI, CFI 값은 0.9이상, RMSEA의 경우 0.05이하)를 만족하였으며, AIC 또한 92.997로 당초모델의 119.714보다 낮은 수준으로 재수정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재수정된 표준화추정치 경로모형

지금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를 검증한 최종 경로모형의 결과와 표준화 추정치(Standardized estimate)는 다음의 <표 6>, [그림4]와 같다.

모형적합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변수간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성립하지 않으면 구체적인 효과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각 변수간 경로계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등교거부충동($p < .001$), 피해고통($p < .005$), 가해자수($p < .005$), 폭력강도($p < .05$)는 각각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고통($p < .001$), 가해자수($p < .001$)는 각각 등교거부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가해자수($p < .005$), 피해기간($p < .001$), 피해종류($p < .005$), 친한친구수($p < .001$)는 각각 피해고통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피해횟수($p < .001$)는 가해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표6> 참조).

표준화 추정치를 통한 결과값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등교거부충동(0.45), 피해고통(0.20), 가해자수(0.16), 폭력강도(0.12)의 순으로 등교거부충동이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종합효과는 피해고통(0.46), 등교거부충동(0.45), 가해자수(0.28), 폭력강도(0.12)로서 피해고통과 등교거부충동의 종합효과가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피해고통은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0.20)보다 등교거부충동을 통한 간접효과(0.26; $0.57 * 0.45$)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가해자수는 간접효과(0.12; $0.19 * 0.20 + 0.18 * 0.45$)보다 직접효과(0.16)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충동양태변수군내에서도 폭력강도는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0.12)만 갖고 있는 반면, 가해자수는 피해고통(0.19), 등교거부충동(0.18)으로의 간접효과와 종속변수(0.16)로의 직접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피해기간(0.24)이 피해종류수(0.19)보다 피해고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친한친구수(-0.21)는 피해고통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로분석 결과를 토대로, 앞서 제시한 연구가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고통, 등교거부충동 변수는 일반양태변수군과 1개 충동양태변수의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피해고통 변수는 등교거부충동 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2)와 (가설2-1)은

표 7. 한계효과

Variable	dy/dx	Std. Err.	z	P> z	[95% C.I.]	X
가해자수	-.1386322	.05738	2.42	0.016	.026174 .25109	1.845
폭력강도	-.0869306	.03634	2.39	0.017	.015697 .158164	2.255
피해횟수	.0027579	.03704	-0.07	0.941	-.075345 .069829	1.96
피해기간	-.0525059	.03221	1.63	0.103	-.010628 .115639	1.915
피해종류수	-.111925	.04249	2.63	0.008	.028641 .195209	2.09
친한친구수	.1005256	.02911	-3.45	0.001	-.157572 -.043479	3.585
성별	-.3238631	.08175	3.96	0.000	.163635 .484091	1.255

채택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폭력강도 변수는 직접효과만 가지고 있고, 가해자수 변수는 직접효과가 간접효과가 크기 때문에 총동양태변수군은 간접효과보다 직접효과가 클 것이라는 (가설3)은 채택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편, 일반양태변수군 중 피해기간, 피해종류, 친한친구수는 정신심리변수군의 피해고통 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으나, 피해횟수는 총동양태변수군의 가해자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모든 일반양태변수들이 정신심리변수군을 경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설4)는 기각되었다. 나머지 (가설 4-1)과 관련해서는 친한친구수가 피해고통을 완화해주는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채택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한계효과(marginal effect)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계수만으로는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강도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계효과는 독립변수가 1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증가 또는 감소하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실제 영향력(dy/dx)을 알려준다.

$$y_i^* = \alpha + \beta x_i + \epsilon_i$$

$$[y_i = 0 (y_i^* \leq 0), y_i = 1 (y_i^* > 0)]$$

정책적 목표가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을 줄이는데 있기 때문에 자살생각을 안할 확률을 구하고자 하였다.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를 0, 없는 경우를 1으로 하여 로짓분석을 한 후 각 독립변수들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한계효과를 계산하였다(<표7> 참조).

도출된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가해자수가 약3명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생각이 13.86% 감소한다²⁰⁾.

학교폭력의 집단화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은 차

20) 원해석은 '가해자수가 3명단위로 늘어날 때마다 자살생각을 안할 확률이 13.86% 줄어든다. 즉 자살할 확률이 13.86% 늘어난다'이며, 역으로 해석한 것이며, 다른 해석도 동일함.

이를 보인다. 집단화는 순차적 또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떠한 방식이든 자살생각에 대한 강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폭력 감시체계는 집단화 경계에 주안점을 두고 작동되어야 하고, 적절한 순찰활동과 예방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② 폭력강도가 완화될수록, 자살생각이 8.69% 감소한다.

폭력유형의 흥포화 정도에 따라 자살생각은 차이를 보인다. 폭력유형은 욕설, 구타, 갈취·협박, 특수폭력²¹⁾으로 구분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폭력강도가 심화됨을 보여준다. 폭력유형에 따라 피해학생이 느끼는 신체적·심리적 고통의 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자살생각 유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이 조직적이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폭력일수록 자살생각이 발생할 확률이 높는데, 1단계씩 약화됨에 따라 자살생각은 8.7%씩 감소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흥포화를 경계해야 하며, 다분히 의도적이면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조직적 특수폭력은 철저히 봉쇄할 필요가 있다.

③ 피해종류수가 1가지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생각이 11.19% 감소한다.

학교폭력의 종류의 중첩도가 완화될 때 자살생각 역시 감소한다. 3가지 폭력이 중첩되어 행해질 때보다 1가지 폭력만 행해질 때 자살생각은 22%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가해학생들은 장난삼아 또는 아무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학생들에게는 학교폭력 종류의 중첩에 따라 자살생각의 강도

가 상당히 달라진다는 점을 주시시켜 중첩석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④ 친한친구수가 5명씩 늘어날 때마다, 자살생각이 10.05% 감소한다.

친한친구수가 많을수록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감소한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친구가 많으면 그만큼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학교폭력을 당하더라도 친구수 1명당 자살생각을 2% 줄일 수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친한 친구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등 유대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⑤ 남학생의 경우는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여학생에 비해 자살생각이 32.38% 작다.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남녀 학생간에 극명한 자살생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녀간 생물학적 구조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든 아니든 학교폭력이 미치는 영향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격차를 감안하여 남녀학생간 대응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⑥ 피해횟수, 피해기간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나름 의미가 있다.

피해횟수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이미 상관관계 분석, 경로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횟수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고, 가해자수에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한계효과 분석에서도 당연히 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피해기간은 p값이 0.103으로 10% 유의수준에 걸쳐져 있어, 미약하지만 의미부여가 가능하다고 본다. 피해기간이 1년, 반기, 분기, 2주

21) 집단 따돌림, 동영상 촬영·유포, 뺑서들, 성추행 등

등으로 단기화될수록, 즉 1단위 감소시마다 자살생각이 5.25% 감소한다. 따라서 피해기간이 장기화되는 것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5. 나가며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방위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안전 확보없는 저출산 극복이 쉽지 않다는 점과 아동의 주된 생활터전인 학교마저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라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학교폭력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구체적 경로와 영향력을 살펴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 유발요소, 유발경로, 유발강도를 잠재변수 도입없이 관측된 자료만으로 살펴보았다.

회귀모형은 정신심리변수군(2개 변수)과 총동양태변수군(1개 변수) 등 2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되는 단일 모형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자살생각 유발요소는 등교거부충동, 피해고통, 가해자수인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자살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등교거부충동으로 나타났다. 2가지 유형의 변수군이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기존연구와 차별화된 접근에서 나온 결과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유발경로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할 때 유사한 결과도 있는 반면, 특이한 결과도 도출되었다. 첫째, 일반양태변수군은 피해횟수 변수를 제외

하고는 모두 정신심리변수군을 경유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김재엽 외(2010), 박재연(2010), 박병금(2007)의 연구 등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맥락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총동양태변수군은 자살생각에 직·간접 영향을 동시에 미치는 변수가 있는 반면, 직접적 영향만 미치는 변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부 학교폭력 유형이 총동적인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노윤채 외(2012)의 연구와 일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총동성을 표현하고 있는 변수들이 동일한 경로로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한 점에서 색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셋째, 자살생각에 대한 직접효과는 등교거부충동(0.45)이 피해고통(0.20)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합한 종합효과는 피해고통(0.46)과 등교거부충동(0.45)이 서로 대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를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종합효과를 중시할 것인지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만, 양자는 정신심리 전개과정상 내면화 단계 차이일 뿐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피해고통은 간접효과(0.26)가 직접효과(0.20)보다 큰 반면, 가해자수는 직접효과(0.16)가 간접효과(0.12)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는 고통이 누적되어 우울이 심화되는 내면화 경향을 묘사하는 것이고, 후자는 총동양태변수군의 경우 비록 매개과정을 거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돌발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폭력강도는 간접효과 없이 직접효과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동적 성향만 존재하므로 가장 많은 주의를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양태변수들의 강도를 측정한

결과, ① 가해자수 3명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생각 13.86% 감소, ② 폭력강도가 1단계씩 완화될 때마다 자살생각 8.69% 감소, ③ 피해종류수 1가지씩 줄어들 때마다 자살생각 11.19% 감소, ④ 친한 친구수 5명씩 늘어날 때마다 자살생각 10.5% 감소 ⑤ 동일조건인 경우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자살생각 32.38% 감소 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학교폭력의 집단화, 흉포화, 행위중첩을 경계해야 하고, 친구와의 유대강화와 남녀학생간 대응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생각을 다룰 실천적 개입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석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만일 학교폭력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각적인 위기 개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등교거부충동이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충동이 행위로 표면화된 등교거부(결석)는 자살생각을 넘어 자살시도도 연결될 우려가 매우 크다. 따라서 수긍가능한 사유없이 결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일단 관심대상에 넣어 관찰할 필요가 있고, 만약 결석사유가 학교폭력때문이라면 즉각 위기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 감시활동은 집단화 및 흉포화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수 감소와 폭력강도 경감은 자살생각을 상당수준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여러 학생들이 모여있는 경우 학교폭력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경계해야 한다. 아울러 가해학생 조치를 위한 폭력행위 경중 판단요소에도 집단화·흉포화 요소를 세분화하여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장난 또는 이유없는 폭력 행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상당수가 장난(39.3%; 714명) 또는 이유없이(25.2%; 459명) 행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해지는 폭력이 피해학생에게는 의외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해종류가 1가지씩만 줄어도 자살생각 감소효과는 11.19%한다는 결과를 감안한다면, 장난 또는 이유없이 행해지는 학교폭력(64.5%)만 제거해도 자살생각이라는 심각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이러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재미삼아 만들고 SNS로 퍼나르는 신종 학교폭력의 과급과 확산도 자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넷째, 효과성 높은 친구만들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친한친구수는 학교폭력 관련변수중 유일하게 피해 고통을 완화해주고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정부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과 같이 학교차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똑같은 조건일 경우일지라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은 자살생각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여학생을 특화하여 심도있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야 대한민국도 밝고 역동적인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자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하지 않도록

록 학교 뿐만 아니라 정부, 지역사회, 시민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달리 정신심리변수군, 충동양태변수군, 일반양태변수군 등으로 구분한 후, 자살생각 유발 요소·경로·강도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탐색적이고, 표본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성 있는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